

# 신정훈 “민형배, 가짜 카드뉴스로 여론 호도” 연일 맹공

예비경선 관련 ‘압도적 지지’ 표현 적시  
他조사 광주 수치 넣어 1위 오인 유도  
사과 요구...당선관위엔 자적 검증 촉구  
“예비경선 결과 공개 공동대응해야”



23일 신정훈 후보 측에 따르면 민 후보는 지난 20일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 결과 발표 이후 각 후보자 득표율을 담은 출처 불명의 ‘예비경선 결과’ 문건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당원 선택권을 도둑질하는 경선 테러”라며 중앙당의 철저한 조사와 후보 자격 박탈까지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민 의원 캠프에서는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는 카드뉴스를 배포하며 마치 압도적인 지지로 예비경선을 통과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게 신 후보 측의 주장이다. 실제 해당 카드뉴스에는 민 후보의 사진과 함께 ‘33.4%’라는 수치가 적힌 막대그래프가 배치

되고 ‘압도적 지지’, ‘예비경선 통과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신 후보 측은 민주당이 당규상 경선 득표율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민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오인하도록 의도한 ‘악마의 편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민 후보 측이 사용한 수치의 경우 지난 1월 말 광주지역 한 일간지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로, 전남·광주 전체가 아닌 ‘광주 지지율’만 표기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신정훈 후보는 “전남을 제외한 광주지역 수치만을 인위적으로 부각해 배제한 것 자체가 가짜 뉴스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앞에선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고 뒤에선 교묘한 편집 기술로

시·도민을 기만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라고 민 후보를 직격했다. 또한 신 후보는 민 후보 측이 해당 후보물에 대해 ‘최근 실시 중인 언론사 여론조사 대응책’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의 여론조사 수치 가운데 유리해 보이는 결과 일부만을 뽑아 과도하게 강조하는 행태는 유권자의 인식을 왜곡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는 “이러한 방식은 합법의 외피를 쓰고 편법과 반칙에 기대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으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행태”라며 민형배 의원 측에 ▲33.4% 수치의 진실 여부 공개 ▲시·도민에 대한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신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를 향해 “일부 데이터를 전체 결과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어 유권자의 인식을 왜곡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은 전남·광주의 민심을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후보자 자격증을 포함한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신 후보는 전날에도 여론조사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민형배 의원이 예비경선 결과를 교묘한 편집기술과 문구로 시·도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당 선관위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민형배 후보는 이날 예비경선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 사태와 관련, 본경선 진출 후보 5인에게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당 선관위에 예비경선 결과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양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신정훈(사진) 국회의원이 민형배 의원 측이 예비경선 통과 이후 과거 실시된 여론조사 수치를 적시해 발표된 카드뉴스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시·도민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등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 의료 인프라 강화를 골자로 한 두 번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강기정 예비후보 측 제공)

## 강기정, ‘1·1·7 통합응급의료망’ 비전 제시

광주형 응급의료 플랫폼 전역 확대  
지역맞춤 의료거점 구축 전략 발표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특별시장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1·1·7 통합응급의료망’ 구축과 지역 맞춤형 의료 거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의료는 시민 행복의 시작이자 기본사회의 기준”이라며 “사는 곳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일, 거리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일을 통합특별시에서 반드시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강 예비후보는 “서울시민은 7분 만에 구급차 도움을 받는 반면, 전남도민은 2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지적했다. 이날 강 예비후보가 제시한 ‘1·1·7 통합응급의료망’은 1분 안에 이송될 병원을 결정하고 1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응급 이송 체계 구축과 7분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형 응급의료 플랫폼’을 특별시 전제로 확장하고 전담 구급차(Mobile ICU)와 닥터헬기 추가 도입, AI 스마트 안심돌보미 및 마을 간호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응급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순천 ‘정원 100명 규모 통합 의과대학’ 설립 ▲광주권 ‘중입자가속기’ 도입 ▲동부권 ‘100만 거점 종합병원’ 건립 ▲서부권 ‘최첨단 메디컬스 복합타운’ 조성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목포·순천·강진의료원 기능 특화, 24시간 심야어린이병원 확대, 비대면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 등 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강 예비후보는 “검증된 광주형 응급의료 플랫폼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모델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산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 강기정·신정훈, 대주교 예방...단일화엔 신중

姜 “가치·정책 시민 검증 받을 것”  
辛 “지금은 정책 검증 우선 집중”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와 신정훈 국회의원이 23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옥현진 대주교를 함께 예방한 가운데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본경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예비후보와 신 의원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옥현진 대주교를 만나 조언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두 후보는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역 간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다만, 이날 만남을 단일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전남·광주의 발전이라는 큰 목표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금은 단일화를 논할 시점이지 아니다”라며 “본경선을 통해 시민과 당원 앞에서 각자의 정책과 가치, 미래 비전을 철저히 검증받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현재는 경쟁의 과정이니까 경쟁을 해 나가면서 지역의 문제를 푸는 데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 더 큰 대의를 이루는 방향에서 좋은 결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도 “단일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가치와 경쟁을 시민 속에서 함께 검증받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또 “신 의원과는 오랜 시간 가치에 동의가 됐고 살아온 길이나 통합특별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은 시민 속에서 검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변은진 기자

## 25개 마을서 ‘전남 살아보기’ 추진

道,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 제공

전남도가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올해 25개 마을에서 추진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지난해까지 3천152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532명이 전남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시민이 2-3개월 농촌에 머물며 영농 활동과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면

서 귀농·귀촌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지원하며 농자·주거 정보와 귀농·귀촌 상담 등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올해 운영 마을은 서류와 현장 평가를 거쳐 전남 17개 시·군 25개 마을로 선정했다. 평가는 기존 운영 실적과 전입률, 프로그램 구성, 전남 인력 확보 여부, 숙소 환경 등을 종합 반영했다. 각 마을에서는 농촌 생활 체험과 주민 교류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상가, 사무실(특)임대]**

○ 광주시내전역 대로변 최고요지  
○ 1층점포/2-10층사무실 평수다양  
○ 통건물: 300평/500평/1,000평/4,000평까지다양  
○ 특혜: 6개월무상(일부)/집기제공/보, 월세최저  
○ 승강기, 주차뺑뺑

**[특수매물]**

○ 상호물물교환(웃돈도 드릴 수 있습니다)  
○ 감정가, 공시지가이하 급매물도 있습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 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인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즐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내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